

사회

광주 집창촌 여전히 '성업'

교묘히 범망 피하며 영업... 단속 사각지대

광주지역 집창촌이 여전히 영업중이지만 경찰이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집창촌에 대한 단속에 나서더라도 이미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받은 집창촌이나 안마사실소 여종업원들이 순식간에 성매매 증거를 없애버리거나 이미 경찰이 덮친 업소의 연락을 받고 영업 중단한다는 것이다.

또 정확한 근거 없이 강제 단속에 나섰다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되레 이들 업소가 경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반발하면서 경찰이 위축됐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손님으로 가장해 증거를 잡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못해 무죄를 받는 사례도 있다.

대전에서는 경찰이 노래방을 단속하던 중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업주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했지만

해가기 때문이다.

경찰이 특별 대책반을 꾸려 특정 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서더라도 이미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받은 집창촌이나 안마사실소 여종업원들이 순식간에 성매매 증거를 없애버리거나 이미 경찰이 덮친 업소의 연락을 받고 영업 중단한다는 것이다.

또 정확한 근거 없이 강제 단속에 나섰다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되레 이들 업소가 경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반발하면서 경찰이 위축됐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손님으로 가장해 증거를 잡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못해 무죄를 받는 사례도 있다.

대전에서는 경찰이 노래방을 단속하던 중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업주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했지만

이 업주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결국 광주경찰도 동구에 21개, 서구에 19개의 성매매 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제보나 신고, 확실한 증언이 있기 전까지는 실제 파악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이 최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연락처가 노출되고 있는 유사 성행위 업소 단속에 눈을 돌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업소들이 경찰서 별로 2~3명에 불과한 단속 경찰의 얼굴을 이미 알고 있고 일부는 경찰서 앞에서 단속 경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까지 한다"며 "처벌과 함께 업소의 문을 닫게 만들 수 있는 자치구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女사우나 가스누출... 목포 40명 치료

구토·복통... 경찰 조사중

목포의 한 대형 사우나에서 가스누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손님 수십여명이 병원으로 옮겨지거나 대피했다.

19일 오전 11시45분께 목포시 상동 한 사우나 여탕에서 이모(여·46)씨 등 40명이 일산화가스로 추정되는 가스를 흡입, 구토와 복통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119에 의해 목포한국병원, 기동병원, 중앙병원, 목포의료원 등 지어 4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인 이곳은 찜질방과 사우나 시설이 함께 있으며 2층 여탕에서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 3층 여자탈의실과 찜질방으로 이어지며 이모(여·54)씨 등 여성 38명과 김모(50)씨 등 남성 2명도 피해를 당했다.

당시 4층 남탕에도 손님이 있었으나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우나의 한 관계자는 "2층 여탕 고객이 두통을 호소해 119에 신고한 뒤 일부 손님이 연탄가스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하기에 안내방송을 하고 직원 15명을 투입, 고객들이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도록 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찜질방 내부에 일산화탄소 수치가 높게 측정된 점으로 미뤄 가스 누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시가스공사 직원이 사고 이후 현장에 출동해 일산화탄소 누출 정도를 파악했지만 통풍이 된 뒤여서 많은 양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사고 당시 보일리실 업무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면서 업주와 교대했는지 여부 등 관리부실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농기계 동원 원전 직원 출근 저지"

영광 흥농비상대책위

영광원전 주변 주민들이 원전의 국제적 수준 안전성 확보 등을 촉구하며 직원들의 출근을 저지하기로 해 충돌이 예상된다.

19일 영광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흥농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주경태)에 따르면 주민 300여명이 20일 오전 7시 영광원전 정문 앞에서 원전 직원 출근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은 오전 10시까지 원전 앞에서 1~6호기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 확보와 원전안전위원회의 해체를 촉구하는 집회도 벌일 예정이다.

이날 주민들은 농기계를 동원해 원전 직원들의 출근을 저지할 방침이어서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주경태 상임위원장은 "주민들이 1~6호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촉구하고 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장애학생 병영체험 19일 31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열린 장애학생 병영체험에 참가한 광주 선광학교 학생들이 거수경례를 하자 조교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워 칭찬하고 있다. 20일까지 진행되는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제식훈련, 서바이벌 시역, 야간 경계근무 등을 체험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신임 사단장이 탄약고 비상벨 눌렀지만 "..."

취침 다음날 새벽 불시 점검 매뉴얼 대처 못하자 불호령

최근 취임한 31사단 사단장이 이 큰 새벽 갑자기 탄약고 비상벨을 눌렀다. 사단 내 부대를 시찰하면서 경계근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부대는 조용했고, 이내 사단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19일 향토사단인 31사단에 따르면 지난 12일 취임한 박병기(52·소장) 사단장이 다음날인 13일 새벽 6시에 사단 내 탄약고를 관리하

는 부대를 찾아 탄약고 비상벨을 직접 눌러 경계근무 상태를 점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부대는 사단장의 불시 점검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비상 매뉴얼에 따른 대처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탄약고의 관리와 경계를 맡은 해당 부대는 사단장에게 사단장에게 "부대원 일부가 나로호 발사 전 경계임무로 과경계 인원 미 부족한다"며 최근 진행된 예비군 동원훈련 준비를 위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할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단 관계자는 "취임 바로 다음 날 새벽 사단 내를 시찰하던 사단장이 군 기강 확립을 위해 비상벨을 눌렀다"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서 해당 부대가 당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 출신인 박 사단장은 육사 40기로, 청와대 외교안보비서실, 12사단 대대장, 이라크 자이툰 사단 참모장, 육군본부 군수기획처장 등을 역임했다.

겁없는 조폭 술값시비 출동 경찰에 행패

광주북부경찰은 19일 술값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폭언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광주의 한 조폭력배 행동대원 최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8일 새벽 4시55분께 광주시 북구 양산동 한 술집에서 건국파출소 소속 송모(35)경사의 배를 밀치고 수 차례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날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술병을 깨고 난동을 부린다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 경사가 자신을 제지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5만원 위폐 10대 영장

광양경찰은 19일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통화위조 등)로 안모(17)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군은 18일 새벽 4시께 광양시 중마동에서 택시를 타고 경기도 평택까지 가다 선금으로 5만원권 위조지폐 6장을 택시요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 기사는 최근 본 위조지폐 관련 기사가 떠올라 지폐를 살펴봤더니 신사임당 그림이 비쳐지 않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사범 5명 구속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9일 마약을 투약한 뒤 주변 상인들과 내연녀 등을 협박하고 폭행한(흥기협박 등의 혐의) 오모(53)씨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10일 필로폰을 투약한 채 광주시 동구 대인동의 한 식당에 찾아가 자신에 대해 협박을 한다는 이유로 여주인에게 흥기를 겨누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체포 당시 마약 투약 사실을 감추기 위해 머리털 등 체모를 탈색하거나 모두 깎아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에인대행 사이트서 만난 여성 추행

○...에인대행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을 만나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서 행.

○...19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회사원 채모(41)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30분께 광주시 북구 한 주차장 승용차에서 자신을 만나기 위해 경기도 고양에서 광주를 찾은 A(여·28)씨의 몸을 강제로 만졌다는 것.

○경찰은 "체포가 성매수를 위해 A씨를 만났다가 이 같은 짓을 한 것 같다"며 "체포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 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많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중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동 200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풀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원의 한약은 작은 한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회 제090204-중-4738호

2013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학교설립 58주년 (1954~2012)

【 학부 정시(가군) 】

모집학과 신 학 과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복지상담학과 | 유아교육과 | 음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신입생 모집원료)

원서접수 정시('가군) : 2012. 12. 21(금) ~ 26(수)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 605-1114

【 대학원 일반전형 】

모집학과 일 반 대 학 원 ▶ 신 학 과 [박사과정] / 목회학과 [박사과정] / 신학과 / 신학연구과 / 유아교육학과 / 음악학과

신 학 대 학 원 ▶ 신 학 과

교 육 대 학 원 ▶ 교육학과 - 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상담교육 -

상담치료대학원 ▶ 상담심리치료학과 **사회복지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국 제 대 학 원 ▶ 한국어교원학과

원서접수 일반전형 : 2012. 11. 12(월) ~ 30(금) **입학문의** 062) 605-1115

www.kwangshin.ac.kr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지 3로 36